

# LPGA LA챔피언십, 여자골프 시즌 3승 도전

한국 여자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시즌 3승에 도전한다.

오는 18일(한국 시간)부터 21일까지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엘 카펠레로 컨트리클럽(파72)에서 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총상금 375만 달러·약 53억원)이 펼쳐진다.

한국 여자골프는 올 시즌 개막 초반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개막전인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약 29억원)에선 김아람이 최종 합계 20언더파 26타로 정상에 올랐다.

김아람은 2020년 12월 US 여자오픈과 2024년 롯데 챔피언십에 이어 LPGA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지난달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 달러·약 32억원)에선 김효주가 최종 합계 22언더파 26타로 릴리아 부(미국)와 연장 혈투를 벌인 끝에 우승했다.

김효주는 2023년 어센트 LPGA 이후 2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LPGA 투어 통산 7승을 신고했다.

이번 대회는 김아람을 제외한 주

‘포드 챔피언십 제패’ 김효주 출격

유해란·고진영·윤이나 등도 가세



김효주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애리조나주 샌들러의 월윈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요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2승에 도전하는 김효주는 물론 한국 여자골프 톱랭커인 유해란을 비

롯해 김세영, 고진영, 최혜진, 임진희, 안나린, 윤이나 등이 정상에 도전한다.

기대주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모든 대회에서 톱20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유해란이다.

지난 2월 파운더스컵(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고진영도 주목받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제패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윤이나도 전의를 가다듬는다.

이번 JM 이글 LA 챔피언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예정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790만 달러·약 113억원)의 전초전과 같다.

그만큼 세계 톱랭커들이 대거 출격할 예정이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한나 그린(호주)과 ‘세계랭킹 1위’ 벨리 코르다(미국)가 출전한다.

그린은 2023시즌, 2024시즌에 이어 대회 3연패에 도전한다.

코르다는 2023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다시 해당 대회를 뛴다.

여기에 지노 티파넬(미국), 후루에 아야카(일본), 로런 코플린(미국), 사이고 마오(일본), 부, 브룩 헨더슨(캐나다), 셀린 부티에(프랑스) 등 총 144명이 경쟁한다.



FC서울 정승원, 2-3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FC서울의 정승원이 2025시즌 2~3월 ‘안심’을 마시다 동원샘물 이달의 골’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승원은 6라운드 대구전 후반 45분 윌리안의 크로스를 그림 같은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뉴스

## 영암군민속씨름단, 찾아가는 씨름교실

구림초서 윤정수 코치·최정만 장사 등 기술 전수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지난 10일 구림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씨름교실’을 열고 5~6학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찾아가는 씨름교실은 영암군민속씨름단이 학교를 방문해 한국 고유 민속경기인 씨름을 소개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재능기부의 장.

이날 씨름단 윤정수 코치와 최정만 장사, 유환 선수가 참여해 2대1 코칭으로 학생들에게 살아 잡는 법, 씨름 준비자세와 기술 등을 알려줬다.

씨름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들배지기, 엉덩배지기 등 기술을 배우기 시험해 보며 씨름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씨름교실 일일 강사들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노재영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씨름은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학생들이 체험활동으로 전통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을 접하고, 미래의 선수로도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가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co.kr

## 한국·북한 U-17 아시안컵 4강행...‘남북전’ 성사되나

전·후반 2-2 비긴 뒤 승부차기서 5-3 승...내일 준결승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타지키스탄을 꺾고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U-17아시안컵 4강에 올랐다.

백기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5일(한국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 파이스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대회 8강전에서 타지키스탄과 전·후반을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을 누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는 17일 오후 11시 오카다 스포츠 클럽 스타디움에서 대회 4강전을 치른다.

2023년 직전 대회 결승에서 일본에 0-3으로 져 준우승에 그쳤던 한국은 2개 대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린다.

한국의 이 대회 마지막 우승은 2002년으로 당시 승부차기 끝에 예멘을 누르고 정상에 오른 바 있다.

반면 조별리그 D조 1위로 토너먼트

트에 진출한 타지키스탄은 한국에 패해 8강에서 대회를 마감했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한국은 후반 22분 선제골로 균형을 잡았다.

김지성(수원 U-18)이 교체 투입 1분 만에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정현웅(서울 U-18)이 상대 골망을 갈랐다.

한국은 후반 29분에도 임예찬(대건고)이 득점에 성공했으나, 비디오 판독(VAR) 끝에 임예찬의 슈팅이 나오기 직전 김지성의 핸드볼 반칙이 지적돼 골로 인정되지 않았다.

추가 득점은 놓친 한국은 후반 38분과 40분 연속 실점하며 순식간에 역전당했다.

타지키스탄의 무카마드 나즈리에프에게 동점골을 내준 뒤 압둘로 이브라힘조다에게 추가 실점했다.

패색이 짙던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VAR을 통해 타지키스탄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돼 페널티킥을 얻어

냈다. 그리고 키커로 나선 김지성이 오른발 슛으로 차 넣으며 2-2를 만들었다.

대회 규정상 연장전 없이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한국은 키커로 나선 김예건(영성고), 김지성, 김은성(대동세 무고), 소윤우(충남아산 U-18), 구현빈(인천 U-18)이 모두 성공하며, 한 명이 실축한 타지키스탄을 제치고 4강 티켓을 따냈다.

북한은 앞서 인도네시아를 6-0으로 크게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북한은 4강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3-1로 누른 우즈베키스탄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두 팀은 오는 18일 오후 2시15분 킹 파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붙는다.

한국과 북한이 모두 결승까지 생존하면 대회 결승전은 ‘남북전’으로 성사된다. 결승은 21일 오전 0시 킹 파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3위 결정전은 2008년 대회부터 열린지 않아 두 팀 모두 준결승에서 패하면 남북전은 무산된다.

프로야구선수협

KIA와 유소년 클리닉 진행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유소년 야구 클리닉을 진행했다.

선수협은 15일 “지난해 KBO리그 우승팀 KIA와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유소년 야구 클리닉 ‘두드림(DODREAM)’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선수협이 주관하는 야구 클리닉 두드림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역 기반의 초등학교 고학년 야구 선수들에게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심어주고, 현역 선수들과 훈련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클리닉에는 광주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 4~6학년 선수 100명이 참가했으며, KIA 선수들이 직접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로 나눠 포지션별 집중 훈련을 실시했다.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